

##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hame Proneness i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and Suicidal Ideation

소 성 인\*\*

부모와 아이마음 정신건강의학과

So, Sung-in

Parents and Child Mind,

Department of Psychiatry

김 현 수\*\*\*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Kim, Hyun-soo

Department of Child Psychotherapy,

Hanyang University

---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s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and further aim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moderating effects of shame proneness in these relationships. Four-hundred-and-seventy middle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participated in the research by filling out a packet of questionnaires their measuring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suicidal ideation, and shame proneness.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that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in school bullying are all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Furthermore,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a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hame proneness, and shame proneness is also positively correlated with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o test the moderation effects,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hierarchically enter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shame proneness, and their interaction terms were conducted. The moderation of shame proneness was found bo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suicidal ideation a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petration experiences and suicidal ideation. Specific interaction patterns in each of these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were examined and the clinical implications of the research findings were discussed.

주제어(Keywords) : 집단따돌림(school bullying), 자살사고(suicidal ideation), 수치심 경향성(shame proneness), 중재효과(moderating effects), 청소년(adolescents)

---

\* 본 연구는 주저자의 석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

\*\* 주저자 : 부모와 아이마음 정신건강의학과 (E-mail: ssosaez@naver.com)

\*\*\* 교신저자 :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khs1004@hanyang.ac.kr)

## I. 서 론

학교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학교폭력 피해를 보고한 학생 비율이 3.8%, 학교폭력 가해를 보고한 학생 비율이 3.3%, 그리고 집단 따돌림 경험을 보고한 학생 비율이 14.8%로, 상당수의 학생들이 학교폭력 현상 내에 존재하며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자 중 폭력 피해로 인한 고통을 보고한 학생 비율이 50%를 넘고 있고 폭력 피해로 인해 자살을 생각해 본 학생 비율도 40%를 넘고 있어(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폭력이 피해 학생들에 상당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 빈도와 그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폭력은 예방과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는 문제 영역이라 하겠다.

학교 폭력의 대표적 형태인 집단따돌림(bullying)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고의적·반복적·지속적으로 부정적 행동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Olweus, 1994). 여기서의 부정적 행동은 의도적으로 구타하기, 상처 입히기와 같은 직접적 폭력, 헐박하기, 별명 부르며 조롱하기와 같은 언어적 폭력, 거절, 따돌림과 같은 간접적 폭력 모두를 포함한다. 또한 집단따돌림은 따돌림 상황에 처한 대상들 간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공격 행동으로도 정의되는데, 따라서 집단따돌림에서는 피해자가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반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나타난다.

집단따돌림 경험이 개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중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보다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자살사고의 위험성이 더 높았고(Klomek, Marrocco, Kleinman, & Schonfeld, 2008), 자살을 생각하게 만드는 상황으로 청소년들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을 때와 교내 폭력을 당했을 때를 높게 보고하였으며(김정수, 노성덕, 2004; 전영주, 이숙현, 2000),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예측하는데 유의하였다(박경원, 2012; 백진숙, 2013). 특히 선행 연구는 우울 점수를 통제한 후에도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사고를 예측하는 데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다(Dorothy & Melissa, 2013).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과 더불어 선행 연구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도 함께 시사하고 있다.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 집단과 가해 청소년 집단 모두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일반 청소년 집단보다 자살사고를 더 빈번하게 보고하였으며(우혜선, 2008; 최준영, 2007), 청소년에 있어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

험이 많을수록 자살사고가 더 높은 특성을 보였다(김광수, 권용신, 2005; 박경원, 2012). 이에 더해 보다 최근에 진행된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집단따돌림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서 자살사고로 가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신복기, 이성진, 2012). 이처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를 다루는 연구들은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사고, 자살충동, 자살에 대한 태도 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듯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이 문헌에서 시사되는 가운데 일부 연구자들은 집단따돌림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요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을 증가 혹은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 연구에서 관찰되는 일부 부분한 결과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

집단따돌림 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를 중재하는 변인으로 현재까지 연구된 것들로는 충동성,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자원봉사활동 등이 있는데, 김경아와 육성필(2014)은 충동성과 회피적 문제해결성향이 남녀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중재함을 발견하였고, 김덕경(2014)은 자아존중감이 정서적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여자 중학생의 자살행동 사이의 관계를 중재함을 발견하였다. 특히 충동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과 회피적 문제해결성향이 높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던 반면 충동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과 회피적 문제해결성향이 낮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에서의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김경아, 육성필, 2014). 또한 자아존중감이 낮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여자 청소년 집단에서보다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의 증가에 따른 자살사고의 증가 폭이 더 컸음도 관찰되었다(김덕경, 2014). 한편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나 자원봉사활동의 중재가능성은 선행연구에서 지지되지 않았다(김덕경, 2014; 백진숙, 2013). 현재까지 진행된 중재변인 관련 연구들은 중재 효과 검증에 있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에만 초점을 두었지 가해 경험에는 초점을 두지 않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충동성, 문제해결능력, 자아존중감에 더해 중재변인으로 새롭게 고려될 수 있는 것으로 수치심 경향성(shame proneness)이 있다. 수치심 경향성은 부정적 사건에 직면하여 수치심의 정서를 경험하게 되는 개인의 경향성을 말한다(Tangney, 2002). 여기서 수치심은 거부되고 조롱당하며 존중받지 못했을 때 경험되는 정서로 자기에 대한 평가로부터 발생한다(Lewis, 1987). 즉 부정적 결과에 대한 평가의 초점이 전반적인 자기에 맞춰져 있을 때 나타나는 정서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수치심은 부적절한 행동을 억제하고 도덕적 행동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도덕적 정서로 불리며, 자기평가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는 점에서 자의식적 정서로 불린다(Eisenberg, 2000; Tangney & Dearing, 2002). 수치심이 전반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수반하는 정서-정동 상태라면 수치심 경향성은 이에 상응하는 특성이나 기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Allen 등(Allen, Gilbert, & Gross, 1994)은 수치심 경향성이 구체적 상황이나 특정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상태 수치심(state shame)이기보다는 전반적이고 내면화된 방식으로 경험되는 특질 수치심(trait shame)에 가깝다고 지적하였다.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은 잠재적으로 수치심이 유발되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특히 민감하게 느끼는 사람으로 수치심이 경험되는 민감성, 강도, 빈도가 높은 사람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Andrew, 1998).

수치심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은 선행 연구에서 일부 관찰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Lester(1998)는 우울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수치심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맺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청소년 집단이 다른 청소년 집단에 비해 수치심을 더 높게 경험하고 있음도 발견하였다(백지현, 2010). 이들 결과에 근거할 때, 집단따돌림 피해는 수치심 정서 경험의 경향성이 높은 이들에게 이러한 경향성이 낮은 이들에게보다 수치심 경험의 가능성을 높여 자살사고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Graham과 Juvonen(1998)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같은 부정적 사건에 대한 개인의 귀인방식이 이들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부정적 사건의 발생 이유를 내적, 자신의 통제 밖(uncontrollable by self), 안정적(stable) 원인으로 귀인할 경우 개인은 사회불안이나, 고독감, 낮은 자기가치감과 같은 부적응적 반응을 경험할 것이고 부정적 사건의 발생 이유를 개인 내적이나 자신의 통제 가능하며(controllable by self) 수정 가능한(unstable) 원인으로 귀인할 경우 개인은 사회불안, 고독감, 낮은 자기가치감과 같은 부적응적 심리적 반응을 덜 경험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자의 귀인양식을 특성적 자기비난(characterological self-blame), 후자의 귀인양식을 행동적 자기비난(behavioral self-blame)이라 명명하고, 특성적 자기비난이 집단따돌림 피해에 대한 자기 지각, 낮은 자기가치감, 불안, 고독 등의 변인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냄을 보여주었다. Graham과 Juvonen(1998)이 제기한 특성적 자기비난의 귀인방식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이들에게서 관찰되는 부정적 자기평가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특성적 자기비난과 같은 부정적 자기평가를 특징적으로 작동시키는 사람들은 낮은 자기가치감, 고독, 불안과 같은 우울환자 혹은 자살사고자들에게서 경험되는 심리적 문제를 경험할 것이라 예측해 볼 수 있다. 더욱이 Weiner(1986, 1995)와 같은 귀인이론가는 부정적 사건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개인내 원인으로 귀인 할 경우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할 때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은 특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 과정을 높게 가동시키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집단에 더 큰 영향을 주어 포기하는 반응양

식인 자살사고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집단에도 적용될지의 여부는 현재 가늠하기 힘든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관찰된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련성을 재확인하고 기질적 특성으로서의 수치심 경향성이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를 중재하는지 검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관련 선행 연구들이 집단따돌림 경험 중 피해 경험에만 집중해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 집단따돌림 피해 경험과 가해경험 모두에 집중하여 중재효과를 검증하였다. 즉 피해경험과 자살사고, 가해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기여하는 기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공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집단따돌림 경험으로부터 보다 큰 심리적 영향을 받을 위험 집단, 즉 집단따돌림 경험으로부터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의 규명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 간에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의 수치심경향성이 중재적 역할을 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시 및 경기도 내에 위치한 4개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살생각 경험을 보고한 비율이 중학생에서 가장 높았다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의 조사 결과에 기초해 연구 결과 적용에 있어서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연구 진행 상 편의를 고려해 본 연구는 청소년 집단으로 중학교 2학년생을 선택하였다. 설문조사의 목적 및 내용, 연구 참여자의 권리 등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483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소요 시간은 30분 정도였다. 설문에 참여한 총 483명 중 결측치나 불성실 응답을 포함한 13명의 자료를 제외한 총 470명의 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된 총 470명 중 남학생은 210명(44.7%), 여학생은 270명(55.3%)이었다. 연구 참가 청소년의 연령 평균은

13.97( $SD=.33$ )이었다.

## 2. 측정도구

### 1)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은 최은숙(2000)이 개발한 집단따돌림 피해·가해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은숙은 국내 초, 중, 고등학생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이 도구를 개발하였다. 피해 척도와 가해 척도는 소외형, 언어형, 신체형의 3가지 유형별 각각 5문항씩을 포함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1학기부터 지금까지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 한 명 또는 여러 명에게서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로 질문하며, 각 문항에 대해 1=‘전혀 없었다’, 2=‘한번 또는 두번’, 3=‘가끔’, 4=‘일주일에 1~2번씩’, 5=‘일주일에 여러번’의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의 집단따돌림 피해 척도와 가해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모두 .86으로 나타났다.

### 2) 자살사고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자살사고는 Reynolds(1988)의 중학생용 자살사고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Junior: SIQ-J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죽음에 대한 생각과 자살 수단에 대한 고려를 측정하며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영식 등(이영식, 서동수, 양석훈, 이길홍, 2004)이 한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타당화한 한국어 버전을 사용하였다. “지난 한 달 동안 얼마나 자주 아래의 내용을 생각했었습니까?”로 질문하며 각 문항에 대해 0=‘전혀 없었다’, 1=‘지난 달은 없었다’, 2=‘1달에 1번’, 3=‘1달에 2~3번’, 4=‘1주일에 1번’, 5=‘2~3일마다’, 6=‘거의 매일’의 7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요구한다. 본 연구의 자살사고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95로 나타났다.

### 3) 수치심 경향성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 수치심 경향성은 Tangney 등(Tangney, Wagner, Gavlas, & Gramzow, 1991)의 청소년용 자의식적 정서 척도(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Adolescents: TOSCA-A)를 류설영(1998)이 우리나라 청소년에 맞는 상황으로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특정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상상하게 한 다음 자의식적 정서를 현상학적으로 나타내는 몇 개의 대안 반응에 1=‘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에서 5=‘매우 그럴 것 같다’의 5점 Likert 척도로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총 12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시나리오의 하위요인으로 수치심 경향성, 죄책감 경향성, 비난 또는 원인의 외면화, 분리

및 무관심, 자부심을 두고 있다. TOSCA-A는 총 5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는 이 중 수치심 경향성을 측정하는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수치심 경향성 척도의 Cronbach's  $\alpha$  계수는 .78로 나타났다.

### 3. 통계분석

설문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통계 소프트웨어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등의 분포를 살펴보고, 연구에 사용된 척도와 문항들의 내적 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청소년 수치심경향성의 중재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킨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에 한하여 단순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es)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 III. 결과 및 해석

### 1.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의 관계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 간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는 각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중앙치, 왜도, 첨도 정보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듯, 연구에 포함된 네 변인들은 모두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먼저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은 각각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r=.26$  &  $r=.20$ , respectively, all  $p<.001$ ), 수치심 경향성과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r=.15$ ,  $p<.01$  &  $r=.09$ ,  $p<.05$ , respectively).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나 가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사고가 더 높았음과 수치심 경향성이 더 높았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과 자살사고 간에도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는데( $r=.15$ ,  $p<.01$ ), 이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자살사고를 더 높게 보고하는 특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상관분석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간 높은 정적 상관도 보여주고 있는데( $r=.61$ ,  $p<.001$ ),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가해경험도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1> Correlation matrices among adolescents'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shame proneness, and suicidal ideation (N=470)

	1	2	3	4
1. Bullying Victimization	-			
2. Bullying Perpetration	.61***	-		
3. Shame Proneness	.15**	.09*	-	
4. Suicidal Ideation	.26***	.20***	.15**	-
Mean(SD)	19.28(6.03)	23.73(7.18)	32.31(7.35)	27.90(15.85)
Median	17.00	22.00	33.00	22.50
Skewness(SE)	2.87(.11)	1.58(.11)	-.11(.11)	1.99(.11)
Kurtosis(SE)	13.94(.23)	3.02(.23)	.60(.23)	4.79(.23)

\*  $p < .05$ , \*\*  $p < .01$ , \*\*\*  $p < .001$

## 2.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 효과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자살사고를 준거변인으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제 1단계에, 수치심 경향성을 제 2단계에, 그리고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수치심 경향성의 곱으로 이루어진 상호작용 항(<Table 2>에서의 A×C와 B×C)을 제 3단계에 투입시키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간 높은 정적 상관을 고려해 본 연구는 중재효과 검증에 있어 피해 혹은 가해 경험 하나만을 별도로 투입하여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방식 대신 두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러한 투입 전략은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정적 상관(e.g., 김광수, 권용신, 2005; 박경원, 2012)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피해경험의 자살사고에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실시 시 본 연구는 변인들 간 존재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기 위해 각 변인을 평균중심화한 후 이들을 곱한 값을 상호작용 항으로 사용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단계 1에 투입된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은 청소년 자살사고 전체 변량의 7.5%를 설명하고 있으며(단계 1의  $\Delta R^2 = .075$ ,  $p < .01$ ), 이 중 피해경험만이 청소년 자살사고를 설명하는 데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 $\beta = .23$ ,  $p < .01$ ). 단계 2에 투입된 수치심 경향성은 청소년 자살사고 전체 변량 설명에 유의미한 증



<Table 2> Results of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for moderating effects of shame proneness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and suicidal ide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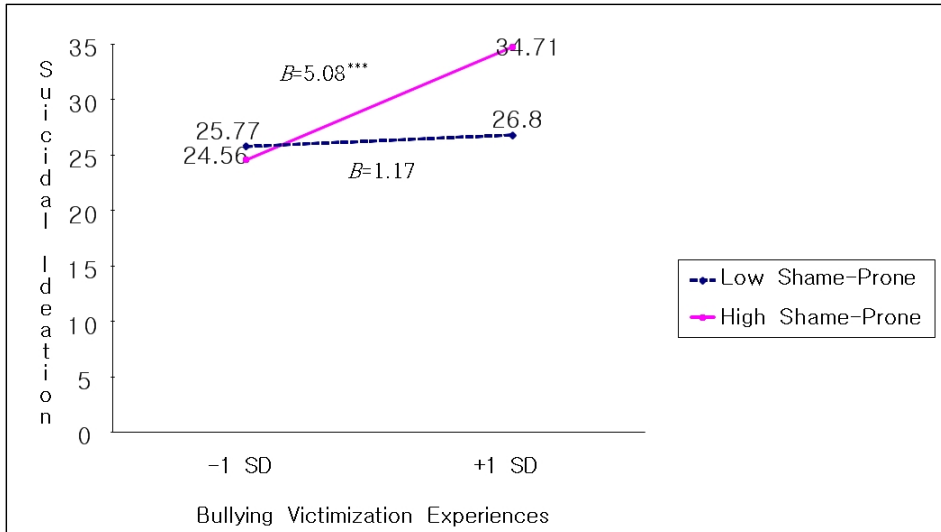
Criterion	Step	Predictors	Step1 $\beta$	Step2 $\beta$	Step3 $\beta$	$\Delta R^2$	Step1 $F$	Step2 $F$	Step3 $F$
Suicidal Ideation	1	Victimization(A)	.23**	.21**	.18**	.075**	18.74**	14.73**	10.05**
		Perpetration (B)	.07	.06	.08				
	2	Shame Prone(C)		.11*	.11*	.012*			
		A × C			.14*		.011*		
	3	B × C			-.12*				

N=470; Shame Prone=Shame Proneness; \* $p<.05$ ,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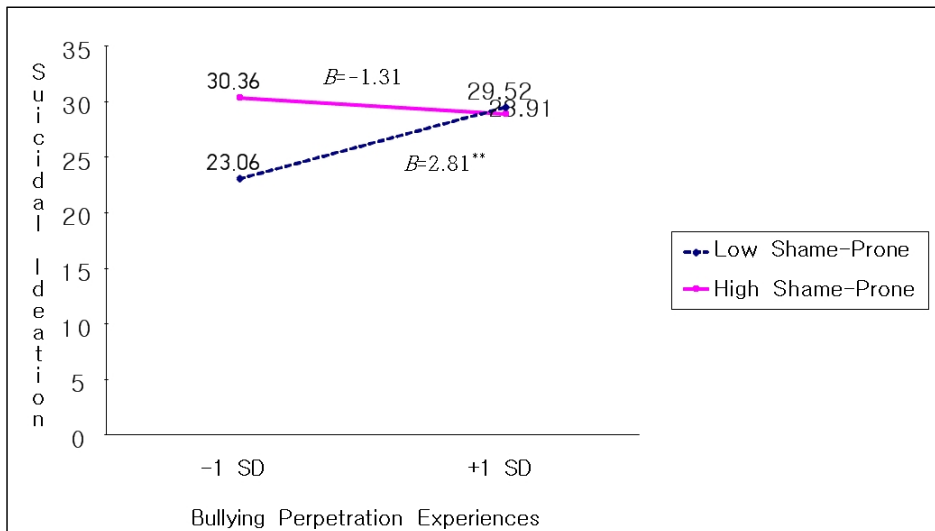
분을 가져왔으며(단계 2의  $\Delta R^2=.012$ ,  $p<.05$ ),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beta=.21$ ,  $p<.01$ )과 더불어 청소년의 자살사고 설명에 있어 유의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beta=.11$ ,  $p<.05$ ). 단계 3에서 두 개의 상호작용 항을 추가적으로 투입시켰을 때 상호작용 항들은 청소년 자살사고에 유의한 설명 증분을 나타내었다(단계 3의  $\Delta R^2=.011$ ,  $p<.05$ ). 이 모델에서 피해경험×수치심 경향성(A×B의  $\beta=.14$ ,  $p<.05$ )과 가해경험×수치심 경향성(B×C의  $\beta=-.12$ ,  $p<.05$ )의 두 상호작용 항들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beta=.18$ ,  $p<.01$ )과 수치심 경향성( $\beta=.11$ ,  $p<.05$ )과 더불어 청소년 자살사고를 설명하는데 유의한 예측변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의 자살사고에의 영향을 수치심 경향성이 중재함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상호작용 항들을 포함한 제 3 모델은 청소년 자살사고 전체 변량의 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수치심 경향성은 이들의 자살사고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중재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두 유의한 상호작용(집단따돌림 피해경험×수치심 경향성과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수치심 경향성)에 대해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 방식으로 단순 주효과 기울기 분석(simple slope analyses)을 실시하였다. Aiken과 West(1991)가 제안한대로, 수치심 경향성 평균에서 1 표준편차 위(+1 SD)와 아래(-1 SD) 수준에서의 예언변인과 준거변인 간의 선형방정식을 산출하였고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Figure 1]과 [Figure 2]에 제시되어 있다.

[Figur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의 기울기( $\beta$ )는 5.08로 유의하였으나( $t=5.71$ ,  $p<.001$ ),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의 기울기( $\beta$ )는 1.17로 유의하지 않았다( $t=.96$ , n.s.). 즉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의 높고 낮



(Figure 1) The moderation of adolescents' shame proneness in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s on suicidal ideation ( $^{***}p<.001$ )



(Figure 2) The moderation of adolescents' shame proneness in the effect of school bullying perpetration experiences on suicidal ideation ( $^{**}p<.01$ )

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던 데 반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과 낮은 청소년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사고의 증가로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의 차이가 유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는, [Figure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경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의 기울기( $\beta$ )가 -1.31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t=-1.28$ , ns.),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경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의 기울기( $\beta$ )는 2.81로 유의하였다( $t=2.59$ ,  $p<.01$ ).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의 높고 낮음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데 반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ure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살사고를 보이고 있었으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사고의 증가로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 간 관계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를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 변인들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에는, 많은 선행연구들(김광수, 권용신, 2005; 김정수, 노성덕, 2004; 박경원, 2012; 백진숙, 2013; 신복기, 이성진, 2012; 우혜선, 2008; 전영주, 이숙현, 2000; 최준영, 2007; Dorothy & Melissa, 2013; Klomek et al, 2008)이 시사한 바대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발견되었다. 즉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높거나 가해경험이 높은 청소년들은 자살사고도 높게 보고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외에도 연구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더불어 청소년 수치심

경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비록 피해경험에 비해 그 상관 정도는 낮았으나, 가해경험도 피해경험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상황에서 수치심을 민감하게 느끼는 성향인 수치심 경향성과 정적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들 연구 결과가 상관 분석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집단따돌림 경험이 부정적 자기평가를 이끌어 수치심이란 정서에 민감하도록 만들었는지 아니면 수치심정서에 취약한 청소년 특질이 이들을 집단따돌림의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되도록 만들었는지 그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본 연구는 수치심 경향성과 자살사고 간 유의한 정적 상관도 발견하였다. Weiner(1986, 1995)는 부정적 사건을 통제 가능한 개인내 원인으로 귀인한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고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행동 양상을 보이려는 반면 부정적 사건을 자신이 통제하기 어려운 원인으로 귀인한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고 철회하거나 포기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Weiner가 주장한 바대로 수치심이 포기 행동의 일환인 자살사고와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이 Lester(1998)는 우울의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수치심이 자살사고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임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수치심이란 정서와 이에 수반하는 자기관련 사고가 자살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상관분석으로부터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결과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 경험 간 높은 정적 상관이다. 연구는 두 변인 간 .61이라는 높은 정적 상관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피해경험이 높은 청소년의 경우 가해경험도 높게 보고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유사한 결과가 관련 문헌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나영, 고재홍, 2005; 장미향, 성한기, 2007; 최준영, 2007).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청소년 집단에서의 집단따돌림 피해자 및 가해자가 별도의 구별되는 개인이 아닐 수 있음을 드러내준다.

다음으로,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간 높은 정적 상관을 고려해 본 연구는 중재효과 검증에 있어 피해 혹은 가해 경험 하나만을 별도로 투입하여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방식 대신 두 변인을 함께 투입하여 중재효과를 검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청소년 자살사고와의 정적 상관(e.g., 김광수, 권용신, 2005; 박경원, 2012)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이 혼재된 상태에서의 피해경험의 자살사고에의 영향을 반영한 결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투입전략을 사용하여 제시된 가능성을 검증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회귀분석 결과, 주효과에 있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수치심 경향성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고, 상호작용 효과에 있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수치심 경향성의 상호작용,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수치심 경향성의 상호작용이 자살사고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수치심 경향성은 집단따돌림 피해경

험과 자살사고,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 모두를 중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이 함께 투입된 상태에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유의한 예언변인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즉, 집단따돌림의 피해경험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해경험은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독자적 설명력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관분석에서 나타난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유의한 관계가 실제적으로는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자에게서 공존하여 나타나는 피해경험에 의해 설명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재효과의 구체적 양상을 검토한 결과, 먼저 집단따돌림 피해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많아져도 자살사고가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한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많아져도 자살사고가 변화하지 않는 양상을 보여준 반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의 경우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사고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물론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자살사고에서 전반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중재 양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 고-저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해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집단에서의 자살사고 증가로 수치심 고-저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낮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자살사고를 보이고 있었으나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높은 경우에는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 집단에서의 자살사고의 증가로 수치심 경향성 고-저 집단 간 자살사고에서의 차이가 사라졌다.

앞서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수치심 경향성은 수치심을 경험하기 쉬운 특질로, 전반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수반하는 정서-정동 상태에 민감한 특징을 보인다(Allan et al., 1994; Lewis, 1987; Tangney, 2002). 특히 전반적 자기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개인으로 하여금 무기력을 경험하게 하여 철회나 포기와 같은 행동을 이끌 수 있다. 이는 수치심의 경험이 철회나 포기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장한 Weiner(1986, 1995)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할 때,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사람들은 낮은 사람들보다 자신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타하는 경향이 높으며, 특히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과 관련한 이유로 부정적 상황이 나타났다 가정하는 경향이 높아 무기력, 낮은 자기가치감으로 이어질 수 있고 자살 사고나 행동의 가능성도 높다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에 더해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수

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과 낮은 청소년에 있어 서로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먼저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자기 비난적 성향이 강한 즉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에게 부정적 자기평가를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Graham과 Juvonen(1998) 그리고 Weiner(1986, 1995)가 주장한대로, 따돌림을 당하게 된 원인을 자기의 통제 밖 변화시킬 수 없는 내적 원인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여 자살을 생각하였을 수 있다. 이와는 비교되게,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은 따돌림 피해를 자신이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귀인해 무기력을 덜 경험하고 따라서 자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에 있어서는 연구는 피해경험과는 반대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즉 가해경험은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에게 자살사고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나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이미 높은 자살사고 수준을 보다 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즉 집단따돌림에 가담한 경험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돌아보게 할 만한 충분히 큰 스트레스원이나 자극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에게는 원래 높은 자기비난 수준을 더 끌어올릴 만한 충분한 자극이 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수치심 경향성, 자살사고라는 변인들 간 관계를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한 동시에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중재하는 새로운 변인을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집단, 그리고 집단따돌림 가해경험이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집단에 자살사고를 높이는 위험 사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따돌림 현상으로 파생되는 청소년 정신과적 문제를 예측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접근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청소년 자살사고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이러한 사건 발생 후 청소년 특질에 따른 면밀한 자살사고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또한 연구는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청소년이 집단따돌림에 가담하게 된 경우와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이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하게 된 경우, 이들에 대한 추후 자살사고의 모니터링과 개입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는 집단따돌림 경험의 형태, 수치심 경향성 수준에 따른 내담자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치료적 혹은 교육적 개입도 달라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집단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수치심 경향성이 높은 청소년 집단에 대해서는 피해 경험이라는 트라우마를 다루고, 지지집단을 제공하며, 단점을 찾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자원과 긍정 부분에 집중하도록 돕는 치료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수치심 경향성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집단따돌림 가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개입에 있어서는 잘못된 행동의 사과와 개선, 공감 증진 훈련이나 감정 조절 훈련 등에 초점을 둔 접근이 유용할 거라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사고에 기여하는 기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 공헌했으며, 집단따돌림 경험으로부터 자살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자살에 취약할 수 있는 집단을 규명하는데 공헌하였다. 이러한 연구 의의에도 불구하고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그리고 자살사고에서 상대적으로 협소한 점수 범위를 보이는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에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이들 변인 점수들은 정적 편포되었고 첨도가 높은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점수 범위의 제한은 변인들 간 실제 관계를 조명하는 있어 제한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Whitley, 1996). 따라서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 경험, 자살사고에서 보다 넓은 점수 범위를 나타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특히 상위 점수를 나타낼 청소년들을 포함시켜) 본 연구의 결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집단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자기보고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물론 자기보고식 척도가 개인의 경험을 측정하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은 집단따돌림 경험과 같은 개인적으로 보고를 꺼리는 구인의 측정에 있어서는 사회적 바람직성 반응 편파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이러한 반응 편파가 내담자 반응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자기보고식 측정에 더해 또래보고와 같은 보다 객관적인 측정 방법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집단따돌림의 경험을 피해경험과 가해경험 두 가지로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집단따돌림 경험이 보다 세분화되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 겸 피해자, 방관자, 추종자, 지지자, 소극적 지지자(잠재적 가해자) 등이 피해자 및 가해자 경험에 더해 집단따돌림 경험 형태로 제안되고 있으며(e.g., Olweus, 1994; Salmivalli, Lagerspetz, Björkqvist, Österman, & Kaukiainen, 1996; Salmivalli & Voeten, 2004), 일부 선행 연구는 주도적 가해 경험과 수동적 가해 경험(다른 친구를 따라서 함)이 청소년 자살사고에 차별적 함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e.g., 최준영, 2007). 추후 연구는 이러한 다양한 집단따돌림 관련 경험을 포함시켜 이들 경험과 자살사고 간 관계를 조명하고 이들 관계를 중재하는 중재변인을 규명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진행된 국내외 연구들은 집단따돌림(혹은 더 큰 범위로 '학교폭력') 경험과 자살사고의 관계를 우울감이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e.g.,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 2013; 최미선, 2013; Bauman, Toomey, & Walker, 2013). 따라서 우울을 통제하고도 수치심경향성의 조절효과가 나오는지 살펴보는 후속연구가 제안된다. 또한 후속 연구는 남학생과 여학생 간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효과에서 차별성이 발견되는지 검토할 필요

가 제기된다.

본 연구를 통해 집단따돌림 경험이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성이 중재적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자살과 같은 심각한 임상적 현상에 대해서는 적은 설명력이라도 중요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수치심 경향성의 중재는,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지만, 그 설명력이 다소 미미한 면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는 보다 큰 설명력을 지닌 중재변인의 규명에 힘써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아, 육성필 (2014). 청소년의 따돌림 종류에 따른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충동성과 문제해결 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5, 695-712.
- 김광수, 권용신 (2005). 청소년기의 자살 인지양식에 대한 환경요인의 영향. *사회연구*, 1, 221-248.
- 김덕경 (2014). 정서적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여자 청소년의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조절효과.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수, 노성덕 (2003). 청소년 자살충동과 심리사회적 변인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대학생생활연구*, 21, 153-172.
- 류설영 (1998). 대인 관계 상황에서의 죄책감, 수치심과 심리적 증상의 관계연구: 일반 청소년과 비행 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대근, 이진주, 이종각, 김정민, 문수백 (2013).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적 구조분석: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자아존중감, 집단따돌림, 그리고 우울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34, 93-112.
- 박경원 (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학업스트레스와 집단따돌림 및 사회적지지. *승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나영, 고재홍 (2005). 남녀 중학생의 집단따돌림 발생원천의 성분 비교: 사회관계모형분석. *청소년상담연구*, 13, 43-54.
- 백지현 (2010). 남녀 청소년의 또래괴롭힘 참여자 역할 유형에 따른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진숙 (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와 자원봉사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복기, 이성진 (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학교폭력, 우울불안, 자살 간의 관계: 가정위탁, 양육시설, 쉼터,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4, 281-318.



- 우혜선 (200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검증-남녀 청소년 비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식, 서동수, 양석훈, 이길홍 (2004). 한국형 청소년 자살사고 설문개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5, 168-177.
- 장미향, 성한기 (2007). 집단따돌림 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 77-87.
- 전영주, 이숙현 (2000). 청소년의 자살구상과 관련 원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7, 221-246.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14). 2013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연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최미선 (2013).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생각: 우울, 불안, 역기능충동성 및 자기존중감의 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준영 (2007). 청소년의 집단따돌림과 자살 관련 태도. *사회연구*, 14, 223-238.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Aiken, L. S., & West, S. G.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CA: Sage Publications.
- Allan, S., Gilbert, P., & Gross, K. (1994). An Exploration of shame measures-II: psychopatholog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7, 719-722.
- Andrew, B. (1998). Methodological and definitional issues in shame research. In Gilbert, P., & Andrew, B. (Eds.), *Shame: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pathology, and culture* (pp. 39-5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Bauman, S., Toomey, R. B., & Walker, J. L. (2013). Associations among bullying, cyberbullying, and suicide in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Adolescence*, 36, 341-350.
- Dorothy, L. E., & Melissa, K. H. (2013). Suicidal ideation and school bullying experiences after controlling for depression and delinquenc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53, 27-31.
- Eisenberg, N. (2000). Emotion, regulation, and moral development.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1, 665-697.
- Graham, S., & Juvonen, J. (1998). Self-blame and peer victimization in middle school: An attribution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34, 587-599.
- Klomek, A. B., Morrocco, F., Kleinman, M., & Schonfeld, I. S. (2008). Peer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8, 166-180.

- Lester, D. (1998). The association of shame and guilt with suicidality.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8*, 535-536
- Lewis, H. B. (1987). *The role of shame in symptom formation*. Hillsdal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Olweus, D. (1994).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 1171-1190.
- Reynolds, W. M. (1988).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Salmivalli, C., Lagerspetz, K., Björkqvist, K., Österman, K., & Kaukiainen, A. (1996). Bullying as a group process: Participant roles and their relations to social status within the group. *Aggressive Behavior, 22*, 1-15.
- Salmivalli, C., & Voeten, M. (2004). Connections between attitudes, group norms, and behaviors associated with bullying in school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8*, 246-258.
- Tangney, J. P. (2002)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shame and guilt? Shame and Guilt* (pp. 10-27). New York: Guilford.
-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Tangney, J. P., Wagner, P. E., Gavlas, J., & Gramzow, R. (1991). *The Test of Self-Conscious Affect for Adolescents (TOSCA-A)*. Fairfax, VA: George Mason University.
- Weiner, B. (1986). *An attributional theory of motivation and emotion*. New York: Springer-Verlag.
- Weiner, B. (1995). *Judgments of responsibility: A foundation for a theory of social conduct*. New York: Guilford Press.
- Whitley, B. E. (1996). *Principles of research in behavioral science*. California: Mayfield Publishing Company.

원고 접수일 : 2016. 07. 06

수정 원고접수일 : 2016. 08. 18

게재 결정일 : 2016. 08. 26